# 붕괴 원인 조사 본격화…철거 논의도 속도 낼 듯

화정 아이파크 실종자 수색 마무리 수순…수사·철거 어떻게

## 11명 입건 조사…현대산업개발 관계자·감리 이달 하순 영장 신청 검토
## 콘크리트 품질 담당자 소환 부실 자재 등 확인 나서…국과수 조사도 박차
## 입주예정자 재시공 요구…광주시 10개동 안전진단 후 전면철거 여부 결정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 28일 만에 6명의 실종자를 찾아내 5명을 수습했다. 애초 6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됐던 만큼 수색·구조작업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있다.

실종자 6명 중 5명이 숨진 채 수습됐고, 나머지 1명의 위치도 파악된 상태다.

실종자의 수색·구조작업의 끝이 보이면서 붕괴사고 관련 경찰 수사, 붕괴원인조사, 붕괴된 건물의 철거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수사 본격화=경찰의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된다.

7일 광주경찰 아이파크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지난 5일부터 주말 사이에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5일에는 공사현장 안전관리 분야를 책임지는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2명, 6일에는 공사현장의 콘크리트 품질을 담당하는 관계자 1명을 소환해 조사를 했다.

경찰은 그동안 사고 초기 수색·구조작업을 우선으로 생각해 관계자 소환 일정을 미뤘다가, 수색·구조가 장기화 됨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현대산업개발 측과 감리 등을 소환해 조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수색·구조가 진행되는 동안 압수된 물품의 분석을 토대로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의 책임을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이달 하순 현대산업개발 관계자와 감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 신병 처리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6명, 감리 3명, 하청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11명이 업무상 과실 치사상, 건축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있다.

◇붕괴원인 조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의 원인 규명도 탄력을 받을 것을 보인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붕괴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국토교통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도 수색·구조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들면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는 오는 9일 붕괴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시료를 채취해 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분석해 해당 건물의 콘크리트 양생이나 부실자재 사용 등의 문제를 확인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현장 감식 등에 나선다. 국과수 등은 감식 이후 공사 진행 상황과 구체적인 붕괴원인 등의 조사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201동 건물의 처리는?=수색·구조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감에 따라 붕괴 건물의 철거 논의도 구체화 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붕괴 건물뿐 아니라 화정아이파크 1·2단지 10개동 전체에 대해 전문가 안전진단을 실시해 전면 철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 13일 이용섭 광주시장은 "전면 철거 후 재시공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전면철거도 점쳐지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 측도 사고 초창기 일단 사고 수습과 안전 보강에 집중하고, 현장 재시공 방법 등은 정밀구조 안전진단 등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아파트 입주 예정자 모임 관계자는 "1·2단지 모든 동을 전부 철거한 뒤 재시공해야 한다"며 "입주 예정 주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만 보강 공사를 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해체 명령을 내릴 근거가 약해진다는 점에서 안전진단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7일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철거여부는 유관기관과 협의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

광주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28일째인 7일, 소방 구조대원들이 27층에서 발견된 매몰자를 구조하기 위해 가림막을 펼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화정 아이파크 피해자 수색·구조 일지

| 일시 | | 내용 |
|---|---|---|
| 1월 11일 | 오후 3시 46분 | 화정 아이파크 201동 23~39층 붕괴, 6명의 작업자 실종 |
| 1월 13일 | 오전 11시 14분 | 201동 서남측 1층 바깥에서 첫 피해자 발견 |
| 1월 14일 | 오후 6시 49분 | 첫 피해자 수습 |
| 1월 25일 | 오후 5시 30분 | 27층 2호실 안방에서 두 번째 피해자 발견 |
| 1월 27일 | 오후 11시 50분 | 28층 2호실 안방에서 세 번째 피해자 발견 |
| 1월 31일 | 오후 6시 25분 | 세 번째 발견된 피해자 수습 |
| 2월 1일 | 오후 4시 20분 | 26층 2호실 안방에서 네 번째 피해자 발견 |
| 2월 4일 | 오전 11시 10분 | 28층 2호실 안방에서 다섯 번째 피해자 발견 |
| | 오후 3시 29분 | 두 번째 발견된 피해자 수습 |
| | 오후 5시 54분 | 다섯 번째 발견된 피해자 수습 |
| 2월 7일 | 오전 11시 50분 | 27층 2호실 거실에서 여섯 번째 피해자 발견 |
| | 오후 3시 47분 | 여섯 번째 발견된 피해자 수습 |
| | | 네 번째 발견된 피해자 구조 작업중 |

## 광주공공배달앱 가맹점주 배달수수료 지원 신청하세요

광주공공배달앱 위메프오가 최근 배달료 인상 등 경영 비용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광주공공배달앱 가맹점주 배달수수료를 지원한다.

광주공공배달앱 위메프오는 민간배달앱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중개수수료, 광고료 등 증가하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7월 출시됐다. 이번 지원은 가맹점주와 소상공인의 배달수수료 부담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광주공공배달앱에 입점하고 배달료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으로 광주공공배달앱에서 발생한 배달주문 1건당 1000원씩 월별 정산해 다음달에 가맹점주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가맹점주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배달 수수료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9일부터 광주공공배달 홈페이지에 사업장명, 입금계좌 정보, 위메프오 아이디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민생경제과(062-613-3723),(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062-960-2632)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정환 광주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라며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고위험 사업장 집중관리, 중대재해 줄인다

###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와 같은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7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예방 감독을 한다는 게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이다.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하고 집중관리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50인 이상) 중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산업안전보건공단·민간 재해예방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특별 관리를 하기로 했다.

광주지방노동청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지역 밀착 중점감독(항만·어선)을 확대하는 하편, 지역별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업종을 집중적으로 감독한다. 처벌 목적에 치우쳐 있는 현행 사후 감독(중대재해발생 사업장 감독)을 '중대재해 다발 기업 대상 예방감독'으로 개편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전남 미얀마인 민주화운동 지지 집회 시작

광주·전남 지역의 미얀마인들이 다시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지지하는 집회를 시작했다.

7일 광주시민사회 단체들의 모임인 '미얀마 광주연대'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의 미얀마인들로 구성된 미얀마 범청년회는 지난 6일부터 다시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해 광주고속터미널(유스퀘어) 광장에서 매주 일요일 진행했던 집회가 다시 시작된 것이다.

지난해 11월께 경찰이 코로나 상황에서 집회 자제를 요청해 잠시 중단했지만, 미얀마의 상황이 장기화되고 더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집회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들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최대 30명의 인원으로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얀마 광주연대 관계자는" 미얀마 민중의 투쟁은 오월 광주의 외침처럼 우리를 일깨우고 있다"면서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전원주택 강력추천!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경상리 전원주택부지

■ 면적 : 456평
■ 4채 건축허가 득
■ 진입로 상수도 확보

상담 010-3675-7592